

'98 학술축전 · 동아리 문화제를 점검한다

올해도 학우들의 참여도 낮아

학우들이 직접 참여하는 '과기원 만들기' 등은 호응 받아

총학생회 · 동아리연합회 주최로 학술축전과 동아리문화제가 지난 5일부터 학교 전역에서 열렸다.

작년에 중단되었다가 올해 다시 열린 학술축전은 '자주과학'이란 가치를 걸고 총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지만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내실 있는 행사가 되지 못했다. 동아리문화제 역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 학우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던 작년의 행사와는 달리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전반적으로 행사의 규모가 작아졌고 그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기존의 목적인 '동아리 드러내기'의 목표는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들의 과기원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이번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프로그램은 6일 도서관 앞 광장에서 열린 '우리들의 과기원 만들기'였다.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에서 주관한 이 행사는 학생들이 과기원의 건물들을 모형으로 만들어 내보이는 것으로 행사의 가치를 잘 소화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별바라기에서 주최한 공개관측회 행사도 비교적 많은 학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2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밖에 일루전 공연, 활화산 태권도 시연, 이박터 퍼포먼스 <'98이박터>, 다사롬의 <환경호르몬 퍼포먼스>, 인간 사랑의 <거리 신문> 등의 동아리 차원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물리과, 산공과, 재료과, 산경과 등 과 차원의 행사에서도 실험 시연 및 '에버랜드 경영사례 분석' 등의 자보 전시를 통해 학우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행사는 자보, 책자, 플랭카드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으나 학우들의 참여도는 여전히 낮

았다. 행사의 프로그램 자체가 많은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흡인력을 가지지 못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주로 각 동아리 별 활동 내용을 보여주는 전시였고 학우들의 관심 분야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학우들의 관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과기원 만들기, 공개 관측회의 성공 등이 보여준 것처럼 학우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행사의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우 참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학술축전의 경우 아직도 과 단위의 체계를 잡지 못하고 있어 기

획의 중심이 서지 않았고 준비기간 또한 짧아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실을 위해서는 과 단위의 체계 정착이 선행되어야

또 총학생회 내부에서 학술축전의 기조인 '자주과학'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분위기 조성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산공과의 <정보사냥대회>, 학자추의 <우리들의 과기원 만들기>가 학생들 동원에 성공하고 산경과의 <경영분석 자보> 등도 좋은 시도로 평가되어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오중훈 기자 (hope80@cais.kaist.ac.kr)

동아리연합회 한은석 회장 · 권영제 부회장 인터뷰

"동아리문화제도 가치를 세워야 합니다"

이번 동아리문화제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행사를 기획하는 집행부의 인원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시험 기간 때문에 준비 시간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공임없이 지적되는 학우들의 참여문제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학우들의 참여 문제가 홍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우들의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업에 매달려야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의 동아리문화제는 전반적으로 어떠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먼저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시기상으로 일찍 시작하여 행사가 잘 진행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준비가 늦어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올해는 광고 스폰서가 없었던 관계로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작년에 비해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앞으로의 동아리 문화제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대동제와 학술축전의 경우 가치를 내걸고 그를 중심으로 행사가 만들어지는데 그에 비해 동아리 문화제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를 내걸고 그를 중심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좋은 행사를 위한 동아리 내부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의 동아리문화제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오중훈 기자 (hope80@cais.kaist.ac.kr)

석림단상



화학공학과 교수 양승만

가을은 결실과 풍요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우수수 떨어져 가을 바람에 구르는 낙엽과 황금빛으로 물든 교정의 잔디는 벌써 한해가 다 갔구나 하는 아쉬움과 함께 우리 마음을 우수에 젖게 한다. 가을 식기가 아니더라도 늦가을 젖어드는 낙엽과 가을 바람의 쓸쓸스런 풍경은 세월의 무상함과 지난 시절의 아련하게 그리운 추억을 마음 아리게 불러 일으킨다.

기러기 두마리 날아가는 하늘 아래
들국화는 서리서리 감고 안고 피었는데
사랑은 아직도 우리에게 아픔이구나
바람만 머리채에 불비는 가을 저녁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 중에서-

얼마전 타지방에서 열린 가을학회에 참석하느라 기차여행을 하며 가을걷이를 하고 있는 농촌의 가을풍경을 감상하였다. 내가 자리던 시골 마을에서는 추수때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폐달을 밟아서 돌리는 탈곡기의 요란한 소음 가운데서도 낮으로 벼베기를 하며 수확의 기쁨을 서로 나누었다. 차창 밖에 보이는

가을 수상(隨想)

오늘날의 농촌은 콤바인으로 벼베기와 탈곡까지 할 수 있는 기계화 때문인지 추수가 한창인데도 눈에 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예전과 같은 추수의 흥겨움도 없이 오히려 삭막하고 쓸쓸해 보였다. 그러나 농가에서 있는 감나무마다 어김없이 까치밥이라고 남겨둔 감들이 넉넉하게 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사람의 마음만은 변함없이 따스하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 현실은 구조조정과 실업난으로 삭막한 가을이나 '낙엽을 태우며' 따듯하고 그윽한 커피향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아쉬운 때가 아닌가 한다.

이 가을에도 우리 KAIST에는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는 학부 4학년생들과 논문 준비에 여념이 없는 대학원 학생 등 모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가끔은 일에서 한발짝 물러서서 가을이 가져온 계절의 정취를 느껴보았으면 한다. 젊은이가 젊은이답지 않으면 애늙은이다. 흔히들 KAIST는 삭막하고 문화가 없다고 말하나 문화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마음 속의 '고래를 위하여' 드넓은 하늘을 향해 호흡하고 부요한 정감으로 채워가는 가을이 되었으면 한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의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고래도 가끔은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별을 바라본다
나도 가끔 내 마음속의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 별들을 바라본다

-정호승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중에서-

대덕만평



편집자로부터

독자의 소리를 통신상에서도 받습니다. ara의 Times 아이디로 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이번호부터 학술면에 '과학기술계 소식'을 실립니다. 신문사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주소 : (우)305-70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한국과학기술원 과기원신문사
전화 : 042-869-2241.4
FAX : 042-869-2245
편집장 호출번호 : 015-488-7082
기자 상주시간
(월~금) 10시 30분~18시
주소변경 : 일반 869-2244
동창 869-2091